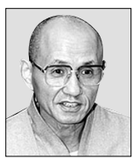
일 주 문



라오스 도서관 건립 협약

월주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은 봉사단체 상상포럼(회장 김동일)과 지난 7월 31일 라오스 단쌍초등학교 상상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을 맺었다.



청소년수련회 참가자 모집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은 8월 20일~23일 진행되는 3차 청소년수련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033)339-6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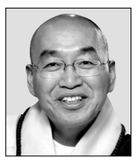
주한 라오스 대사 방문

덕문 동화사 주지 스님은 8월 7일 동화사를 방문한 캄수아이 깨오다리봉 주한 라오스 대사와 차담을 나눴다.



미얀마 긴급 구호기금 모금

성관 로터스 월드 이사장은 미얀마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기금을 8월 31일까지 모금한다. (02) 725-4277



사회통합 아카데미 진행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8월 24일부터 사회통합아카데미 2편 '불평등한 한국사회 새로운 길을 찾다' 를 진행한다.



마하보디사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8월 9일 조계사 대웅전서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과 함께 마하보디사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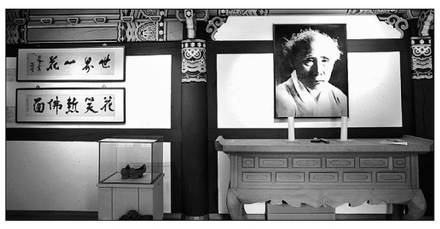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자 대상 수상

효종 대구 불광사 주지 스님이 8월 1일 한국청소년신문사가 주관하는 제12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대상에서 종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만공선사 一喝은 총칼과 서슬퍼런 권력 뛰어넘어"

광복 70년 특별인터뷰 경허 · 만공선양회장 옹산 스님

1937년 미나미 총독 향해 불호령 '사자후'
일제시대 조선불교계 내선일체 정책 항거
〈총독부 30년사〉, 조선불교진흥 실패 인정
유공자 선정과 독립운동 인명사전 등재 추진
9월 20일 수덕사서 '만공선사 학술대회'



2011년 완공된 수덕사에 위치한 만공 선사 기념관 내부

1937년 3월 11일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선 전국 불교 31본산(本山) 주지 회의가 열렸다. 회의 의제는 '조선불교 진흥책'. 서슬퍼런 미나미(南次郎) 총독을 비롯해 조선 13도지사, 그리고 31본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미나미는 전국 본산 주지 스님들을 향해 강압적인 어조로 입을 뗐다. "앞으로 조선 불교는 일본 불교와 합병해 더 큰 진흥을 이뤄야 할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누구 하나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이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상을 두 손으로 내려치는 사람이 있었다. 마곡사 주지로 회의에 참석한 만공 선사(1871~1946)였다. 스님은 미나미 총독을 한 손으로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일갈(一喝)했다. "청정(淸淨)이 본연(本然)하거늘, 어찌하여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나왔는가"라고. 이어 스님의 불호령은 멈추지 않았다. "데라우치 전 총독은 조선 승려들을 파계시킨 죄인이다. 그는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을 것이다. 이런 자들을 지옥도에서 구하고 조선불교를 진흥시키는 일은 조선 승려들이 수행을 통해 견성하는길 밖에 없다. 총독부는 조선 불교를 간섭말고 우리 조선 승려에게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다. 이것이 바로 정교분립인 것이다."

만공의 사자후(獅子吼)가 너무 격렬해 총독은 식은땀만 흘리며 다시는 망언을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불교 10대 뉴스로 기록될 정도로 파문이 컸다.

이 당시 일제가 받은 충격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발견돼 화제다. 1937년 발행된 〈불교사〉 잡지와 1940년 발간된 〈조선총독부 시정30년사〉에 기록돼 있다. "조선불교 진흥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식민정책에 의해 왜곡된 조선불교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일제에 강력히 맞선 만공 선사의 독립 유공자 선정과 독립운동 인명사전 등재가 추진되고 있어 불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허 · 만공 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사진〉은 지난 5월 10일 관련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에 냈다.

옹산 스님은 "총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내건 강렬한 만공 선사의 일할은 조선총독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너 뜨렸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이 투쟁은 무장투쟁 못지않은 중요한 항일운동입니다. 왜 유형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라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것이 만공 스님이 구속이나 복역이라는 형식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옹산 스님은 "독립유공자 포상을 할때는 투옥된 사실이 있거나 확실한 재판문서 등 직접적인 항일운동의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조문에 명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장의 일선에서 총과 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장과 목숨을 담보로 담판해서 사기를 꺾어 놓았다면 훨씬 더 승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일제에 저항해 정신적인 근간을 흔든 무형의 항일운동도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재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를 몸소 보여주신 만공 선사는 목숨걸고 우리 한국불교를 지킨 진정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정신적 지도자를 예우해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라고 강경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인다. 이어 옹산 스님은 말을 이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공 스님은 1941년에는 일본의 식민불교정책에 항거하기 위해 선학원 고승대회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한국불교의 고수를 위한 투쟁을 일본에 천명한 것입니다.



8.15 해방 소식을 듣고 만공 선사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꽃송이를 말아 쓴 '세계일화(世界一花)' 친필 탁본 편액 앞에서 경허 · 만공 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이 상념에 잠겼다.

스님은 이때 '망(亡)에 망이 없으면 망이 곧 진(眞)이오, 진에 진이 있다면 진이 곧 망이로다' 라는 유명한 게송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옹산 스님은 "만공 스님은 일제에 저항한 불교 단체인 선학원과 조선불교선종의 창건 주역이고, 1941년 유교법회 최고 책임자로 일제 식민지에 저항한 명실공히 한국불교정신의 구심점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 31본산 주지들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한 분도 바로 만공 선사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옹산 스님은 "만공 선사는 1942년 서산 간월암서 조선 광복을 발원하는 천일기도를 입재했으며, 그 원력이 통했던지 천일기도를 회향한지 3일째 되던 날 해방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이 천일결사는 조선인의 의지와 결속을 도모해주는 원동력이 됐을 것입니다."라며 "만공 선사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그 조상들을 일갈하며 꾸짖던 늠름한 모습의 스님 동상을 세우고 싶습니다"고 바램을 피력했다.

만공 선사는 근현대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의 제자이다. 만공 선사의 가르침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 청담 스님을 통해 이어졌다. 또한 만공을 수발하던 동자승 진성이 지난 2008년 열반한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이었다. 옹산 스님의 스승이 원담 스님이니 만공 선사와 옹산 스님은 사손관계이다. 한편 수덕사와 경허 · 만공 선양회는 오는 9월 20일 오후 1시 수덕사내 황하정루서 '일제강점기 만공대선사의 위상' 을 주제로 한 '제 7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 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은윤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가 '만공선사의 선지와 가풍' △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만공정신사의 재인식' △이재현 교수가 '만공의 항일 독립운동' △안천 교수가 만공선사와 의왕(거문고가 수덕사로 오게된 연유)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는 심응섭 순천향대 명예교수와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나선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수덕사 대웅전에서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10주기 다례제가 열린다.

예산 수덕사=김주일 기자

승무의 대가 이매방 명인 별세

'한국춤의 거목' 이매방 명인〈사진〉이 8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이매방 명인은 1927년 전남 목포생으로 1960년대 '3고무 5고무 7고무' 등을 창안해 큰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이매방 선생의 춤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어 '승무' (제27호) '살풀이춤' (제97호)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명실공히 구한말 이래 변질되지 않은 전통춤의 원형의 맥을 잇는 선구자로서 널리 인정받게 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1987년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1990년 지정)로 우봉전통무용보존회 대표 한국무용협회 · 한국국악협회 고문 용인대 무용학과 대우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한 독실한 불교신자인 한국무용가 부인 김명자(승무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 씨와의 슬하에 딸 이현주 씨를 두고 있다.

국제불교승가회 동암스님 동상 제막



(사)국제불교승가회(회장 최정구)는 7월 28일 스리랑카 콜롬보 아부야하라마 아난다 테로스님의 사원에서 (사)국제불교 승가회 창시자인 동암스님 동상을 제막했다. 동암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 각국에 알리고 특히 스리랑카와의 불교교류를 통한 중생제도에 혼신을 다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최정구 승가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라자팍스 前스리랑카 대통령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북인도 성지순례 성료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북인도 다람살라와 라다크 지역서 '군승 해외 성지순례' 를 진행했다. 군종교구 성지 순례단은 교구장 정우스님을 지도법사로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오심 스님, 양산 보현정사 정수 스님을 비롯한 각군 선임군승 13명과 군종교구 종무원 등 19명이 동참했다. 순례 중 둘째날인 22일에는 남걀사원을 방문해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라마' 를 친견했다.

노덕현 기자

직지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봉행



김천 직지사(주지 흥선)는 7월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어린이 여름학교' 를 직지사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지도법사 희봉 스님(직지사 포교국장)은 "일상의 학교, 학원 생활의 스트레스를 자연과 함께 날려 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지도교사들의 지도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